

광주시, 내년 대중교통 할인제도 도입

모든 시민 생애주기별 차등 지원 'K-패스' 연계 '광주-패스' 시행

광주시가 내년 하반기 새로운 대중교통 할인시스템인 '광주-패스' (가칭)를 도입하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대중교통 활성화와 재정난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K-패스(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연계한 대중교통비 절감 정책 '광주-패스' (가칭)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을 추진했던 광주시는 유례 없는 역대급 세수 부족 등 재정난을 고려해 어린이 교통지원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 전액(13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K-패스와 접목한 '광주-패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는 19세 이상 성인이 전국 어디서나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1회 차부터 최대 60회까지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광주-패스'는 K-패스 제도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과 환급액을 추가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K-패스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반값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성인에 포함된 어르신을 분류해 추후 추가 지원하는 등 '어린이-청소년-청년-성인-어르신-저소득'으로 연결되는 광주만의 전 생애주기 대중교통 지원 정책도 마련한다.

광주시는 K-패스 제도 도입시 현 교통카드 이용요금 기준 월 24~64%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광주-패스 제도까지 더한다면 최대 70% 이상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한 광주시는 국가 중심의 K-패스 시스템 안정화와 시범 운영 결과 등을 확인한 뒤 광주-패스 도입 시기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정책의 신뢰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적극 조율하고, 시의회, 시 교육청 등 유관 기관·단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어린이부터 대중교통 무임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좌절돼 안타깝다"면서도 "시민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국가 대중교통 지원정책인 'K-패스'와 연계한 광주-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국가 시스템을 접목하는 만큼 기존 계획 대비 예산절감 효과 등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어린이부터 대중교통 무임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좌절돼 안타깝다"면서도 "시민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국가 대중교통 지원정책인 'K-패스'와 연계한 광주-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국가 시스템을 접목하는 만큼 기존 계획 대비 예산절감 효과 등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균등한 의료기본권 보장, 선택 아닌 필수 극화 개선의 첫걸음,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

사·도의원들 "전남권 의대 신설하라" 정무창 광주시의회의장과 서동욱 전남도의회의장 등 사·도의원들이 14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해상 세계 최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속도'

전남도 3.7GW 사업계획 최종 확정

전남도가 지난 12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제3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 민관협의회를 열어 해상 단일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을 확정, 단지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이후, 민관협의회, 사업계획 공고,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회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최종(안)을 이날 확정했다.

이번 수정·보완 과정을 통해 공동접속설비 접속 용량 및 전력계통 연계에 대한 한전과의 협의 결과

를 반영해 1단계 집적화단지 신청 용량을 4.6GW에서 3.7GW로 변경했다.

또 영광군의 발전단지 1곳 위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수정 조치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해 지역수용성 확보 계획을 추가 보완했다. 전남도는 이번 제3차 회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계획을 12월 중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2024년 상반기 집적화단지 지정에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해 2029년부터 상업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남도는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

고, 이 중 1단계 3.7GW 사업을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함으로써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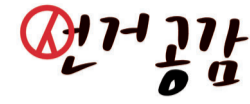
이를 위해 개별 민간사업자 중심의 무질서한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키로 하고, '공공주도 대규모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성, 해상교통, 군 작전성, 매장 문화재 조사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실질적 사업 가능 구역을 선별해 이를 토대로 1단계 집적화단지 후보지를 구체화했다.

최근에는 그동안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들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22대 국회는 민생·경제국회 되기를 바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5>임경준·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

지난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3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4년을 평가하는 문항에서 '보통'이 51.0%, '부정적 응답' 46.0%, '긍정적 응답'이 3.0%로 조사됐다.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이 29.0%로 가장 많았고, '투자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21.7%)',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21대 국회가 민생경제를 최우선 순위로 챙길길 바랐지만, 그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한 것이다.

최근 민생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 현상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원자재가격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다른 어려움들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지역 제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전 분야에서 '대우유니아 법정관리' 사태까지 터지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역소멸' 문제이다.

광주·전남에는 48만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근로자의 92%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과 인력의 수도권 유출 등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역 간 경제 양극화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이 최우선 과제이다. 지역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한 기업들이 우리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 대기업들의 관심과 지원도 필수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전기관들의 지역 제품 구매 비율이 24%에 불과한 점은 아쉬움을 수박에 얹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향토 기업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다.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 중 빠지지 않는 것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이나 대기업 및 해외기업의 투자유치인데, 오랫동안 묵묵히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향토 기업들의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건의과제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역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광주·전남권 스마트 물류특화단지 조성 ▲은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골목상권 포함) ▲지역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 후보자는 깨끗한 플레이를,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유권자는 적합한 후보자를 현명하게 선택할길 기대한다. 부디 22대 국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민생경제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 광주 22개 기업 '수출의 탑' 수상

광주시는 14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광주 힐리데이인 호텔에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 수출의 탑, 유공 포상 전수식'을 열었다.

수출의 탑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년 7월부터 1년간 수출액을 집계해 기업들에 주는 상이다. 올해는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가 30억불탑을 받는 등 22개 기업이 수상했다. 한국알프스 신경영 책임 매니저(철탐산업진흥) 등 11개 기업이 수출진흥 유공 포상을 받았다.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 수출의 탑을 수상한 광주 기업은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30억불탑·대

표 지중립), 한국알프스(10억불탑·김규남), ㈜금호에이치티(5000만불탑·김진곤), ㈜프로(강선주), 동진씨엔씨(우미광), 오택캐리어(이상 1000만불탑·강성희), ㈜서치(문영필), ㈜아이디스(이상 700만불탑·김남진), ㈜탈마전자(안해광), ㈜유창종합식품(장대석), 농협회사법인 에버팜(이상 500만불탑·임종세), ㈜조이스틀링(최희경), 인셀(정창권), ㈜엠제이루스코(이상 300만불탑·박근우), 비엔솔루션(200만불탑·김영철), ㈜아이비에스에프에이(이상훈)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